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재료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로 알려주세요.



내일이 있다 (마태 25, 1-13 (가))

회장단 이 · 취임식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의회)는 지난 28일, 한미장로교회(담임목사 김영모, 929 S Westlake Ave., LA, CA 90006)에서 제52대 회장단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김용준 목사(구제와사랑의교회 담임)은 취임사에서 "남가주 모든 교회가 개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함께 연합하고 서로 도와주며 사랑으로 배려하며 세상에 빛을 발하는 교회협의회가 되길 소망한다."며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 시대 정신을 일깨우는 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교회협의회는 앞서 지난달 2일 52차 정기 총회를 열고 긴급회장으로 김용준 목사, 수석부회장으로 홍석배 목사(나성성림교회 담임)를 선출한 바 있다.

취임식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민종기 목사(중현선교교회 담임)는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창 18:22-26)'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남가주 교회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 교회 공동체를 돌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할길 원한다."며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성숙의 열매가 맺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송종복)가 신앙도서 독후감을 모집한다.

심사는 초·중·고 부문과 성인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지정 도서는 ●초·중·고, 성인 부문 공통: <꽃들에게 희망을>, <아낌없이 주는 나무>, <파인애플 스토리>, ●성인 부문: <5가지 사랑의 언어>, '상처 입은 치유자', 'NO!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며 이 가운데 1권을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응모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며, 제출처는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1655 W. Marine Ave. Gardenia)이다. 당선자 발표는 내년 2월 15일이다.

▶ 문의: (213) 249-077

서양에는 '네 바퀴 신자'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일생에 세 번 성당에 가는 사람인데, 그것도 자기 발로 걸어서가 아니라 '네 바퀴 달린 차'를 타고 가는, 즉 우리말로 '나일론' 신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 네 바퀴 신자는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을 때 유모차 타고 한 번, 혼인할 때 승용차 타고 한 번, 죽어서 장례식 때 장의차 타고 한 번, 그렇게 일생의 중요한 때, 세 번만 성당의 신부에게 신세를 지는 사람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맞이하는 때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태어날 때, 혼인할 때, 죽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그때가 우리 사람들의 삶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태어나는 순간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죽음의 순간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삶으로 옮겨가고, 혼인할 때에는 두 사람이 합하여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새 삶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혼인의 순간에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그 맞이 함이 소홀하다면, 그 신부의 삶 전체가 실패로 연결되지 않겠느냐는 물음과 함께, 마지막 때도 그러하니 이 세상의 삶 전체가 실패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혼인 잔치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깨우침을 준다.

■ 항상 깨어 있으라

팔레스티나 지방의 혼인 풍습은 마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절정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신랑의 도착이 알려지면 들러



리 처녀들이 신랑에게 마중 나가 신부집으로 안내한다. 그다음에 모두가 신랑의 집으로 가서 성대한 혼인 잔치를 벌인다.

마태오 복음에만 나오는 이 '열 처녀의 비유' 이야기에서는,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들과 다섯 명의 미련한 처녀들의 행동이 대조되고 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어느 때 올지 모르기에, 오랫동안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였다. 반면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은 갖고 있었으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 막상 등불이 꺼져갈 때에도 남에게 빌릴 생각만 하였지 가게에 가서 살 생각은 못하였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적어도 겉모습으로는 없었다. 모두 같이 곱게 단장하고 같이 긴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점은 기름의 준비였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챙기느냐는 것이었다.

슬기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한다. 어제와 오늘을 연결시키고 또 오늘을 내일과 연결시키며 준비한다. 그렇게 "내일이 있다"고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다. 미련한 사람은 오늘날을 산다.

■ 내일을 준비하는 삶

오늘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다.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주부면 주부로서 하루 24시간은 같다. 그 중에서 1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일의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 퇴근 후 집에 와서 발 닦고 TV 보고 잠을 잔 친구와 퇴근 후 1시간씩 공부한 두 친구의 10년 후 모습은 크게 달랐다. 사실 내일을 위한 준비는 오늘 하루 1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혼인에 비길 수 있다. 그러나 신랑이 도착하리라는 사실만 알 뿐 그 정확한 시간은 모른다. '이미'와 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간대에서 '신랑(주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는' 자세로 자기 발로 걸어가든, 네 바퀴를 이용하든, 매일 열심히 왔다 갔다 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 때가 오면 '빌리면 된다', '사면 된다', '내일이 있다'는 식의 계엄과 미련은 통용될 수 없을 것이다.

- 김현준 신부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 10시 30분

☎ 문의전화 (562) 760-3406 에스터 장

숨은그림찾기 정답

